

보도자료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2026년 7월 16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참고자료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상향 조정하게 된 배경”

(붙임 참조)

문의처: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팀장 이화연, 차장 김태섭

Tel: (02) 759-4461, 4066 Fax: 759-4485 E-mail: mpdept@bok.or.kr

공보관: Tel: (02) 759-4199, 4135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BANK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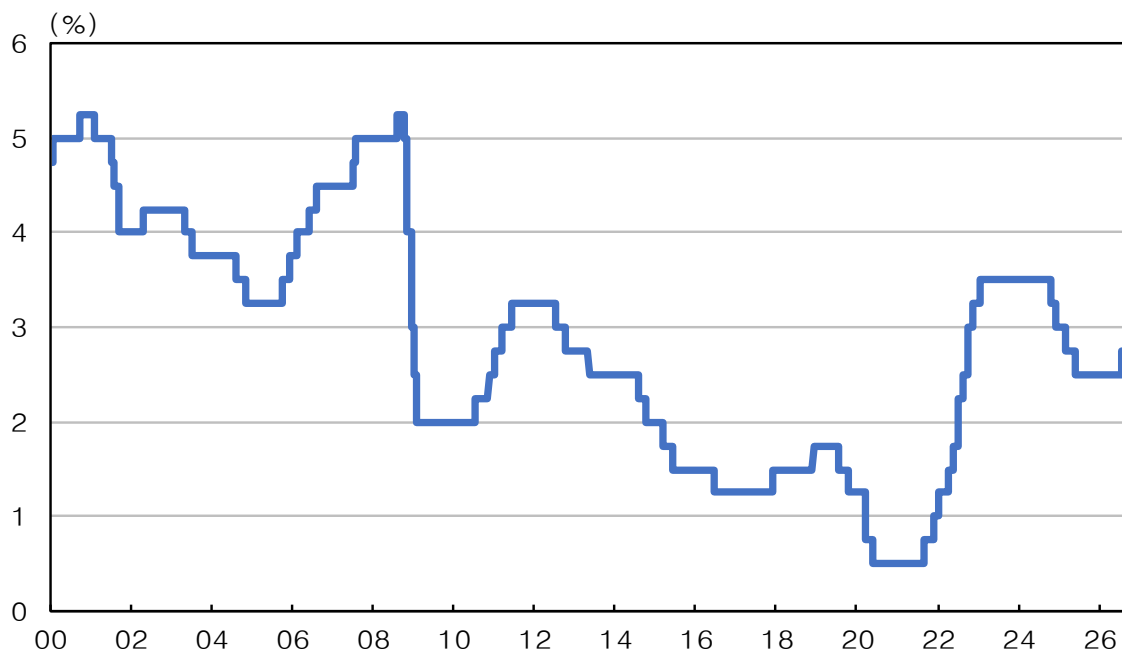
(붙임)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상향 조정하게 된 배경

[정책결정]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 수준에서 2.75%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성장세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한국은행 기준금리¹⁾ 추이



주: 1) 2008년 2월까지의 콜금리 목표

[대외경제 여건]

- 세계경제는 중동상황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지만 견조한 AI 투자로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물가는 그간의 에너지 가격 상승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면서 당분간 높은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제지표

		2024	2025	25.3/4	4/4	26.1/4	2/4	26.4월	5월	6월
미국	GDP성장률 ¹⁾ (전기비연율, %)	2.8	2.1	4.4	0.5	2.1	..	-	-	-
	소매 판매 ¹⁾ (전기비, %)	3.0	3.7	1.5	0.4	1.3	..	0.4	0.9	..
	산업생산 ¹⁾ (전기비, %)	-0.7	1.1	0.5	-0.5	0.3	..	0.9	0.1	..
	ISM제조업 ²⁾ (기준=50)	48.2	48.9	48.7	48.2	52.6	53.3	52.7	54.0	53.3
	실업률 ¹⁾ (%)	4.0	4.3	4.3	4.5	4.3	4.3	4.3	4.3	4.2
	비농기취업자수증감 ¹⁾ (전기비, 만명)	182.6	76.4	3.4	-9.1	13.0	34.4	14.8	12.9	5.7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2.9	2.6	2.9	2.7	2.7	3.9	3.8	4.2	3.5
	근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3.4	2.8	3.1	2.7	2.5	2.7	2.8	2.9	2.6
유로	GDP성장률 ¹⁾ (전기비연율, %)	1.0	1.4	1.1	0.7	-0.9	..	-	-	-
	소매 판매 ¹⁾ (전기비, %)	1.3	2.4	0.2	0.5	0.2	..	-0.3	0.2	..
	산업생산 ¹⁾ (전기비, %)	-3.0	1.6	-0.2	0.1	-0.9	..	0.3	-0.2	..
	제조업PMI ²⁾ (기준=50)	45.9	49.1	50.1	49.5	50.6	51.7	52.2	51.6	51.4
	실업률 ¹⁾ (%)	6.4	6.4	6.4	6.3	6.3	..	6.2	6.2	..
	수출 ¹⁾³⁾ (전기비, %)	0.6	2.4	0.3	-0.6	0.6	..	3.2	..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2.4	2.1	2.1	2.1	2.0	3.0	3.0	3.2	2.8
	근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2.8	2.4	2.3	2.4	2.3	2.4	2.2	2.6	2.4
일본	GDP성장률 ¹⁾ (전기비연율, %)	-0.2	1.1	-2.3	0.7	1.8	..	-	-	-
	소매 판매 ¹⁾ (전기비, %)	2.5	1.4	-1.0	0.5	1.5	..	2.1	1.9	..
	산업생산 ¹⁾ (전기비, %)	-2.6	-0.3	-1.1	0.3	2.5	..	0.5	0.5	..
	제조업PMI ²⁾ (기준=50)	49.2	49.0	49.1	49.0	52.0	54.8	55.1	54.5	54.8
	수출 ¹⁾ (전기비, %)	6.2	3.1	1.2	5.1	7.9	..	1.5	1.8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2.7	3.2	2.9	2.7	1.4	..	1.4	1.5	..
	근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1.9	1.6	1.5	1.5	1.4	..	1.1	1.1	..
중국	GDP성장률(전년동기비, %)	5.0	5.0	4.8	4.5	5.0	4.3	-	-	-
	소매 판매(전년동기비, %)	3.5	2.7	2.4	0.7	2.4	0.2	0.2	-0.6	1.0
	산업생산(전년동기비, %)	5.8	5.9	5.8	5.0	5.7	4.6	4.1	4.5	5.3
	제조업PMI ²⁾ (기준=50)	49.8	49.6	49.5	49.4	49.6	50.2	50.3	50.0	50.3
	수출(전년동기비, %)	5.9	5.4	6.4	3.7	14.7	20.2	14.1	19.4	27.0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0.2	0.0	-0.2	0.6	0.8	1.1	1.2	1.2	1.0
	생산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2.2	-2.6	-2.9	-2.1	-0.6	3.6	2.8	3.9	4.1
글로벌	교역량증가율 ⁴⁾ (전년동기비, %)	2.3	4.0	3.8	2.9	4.3	..	5.0	..	..

주: 1) 계절조정 기준
3) 역내거래 제외

2) 연·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4) 상품수입량 기준

-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 금리인상 기대 및 중동상황의 변화 등에 영향받아 미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국제금리는 상승하였다. 주가는 AI·반도체 경기 전망 변화에 따라 상당폭 등락하였다.
-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미국·이란 종전협상 이행 상황, AI 투자 전망, 주요국 통화·재정정책 및 통상환경 변화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금융지표

		2025	26.3월	4월	5.27일	5월	6월	7.15일
국채금리 ¹⁾ (%)	미국(2년물)	3.47	3.79	3.87	4.03	4.00	4.17	4.13
	미국(10년물)	4.17	4.32	4.37	4.48	4.44	4.47	4.55
	독일(10년물)	2.86	3.00	3.04	2.99	2.94	2.86	3.12
	영국(10년물)	4.48	4.92	5.01	4.86	4.81	4.76	4.94
환율 ¹⁾	달러인덱스	98.3	100.0	98.1	99.2	98.9	101.2	100.5
	신흥시장국 ²⁾	46.6	46.2	47.3	47.4	47.7	46.6	46.7
	엔/달러	156.7	158.7	156.6	159.5	159.3	162.6	162.2
	위안/달러	6.99	6.91	6.83	6.78	6.77	6.79	6.78
주가 ¹⁾³⁾	전세계	1,014.6	978.9	1,077.1	1,122.3	1,130.8	1,120.5	1,128.1
	선진국	4,430.4	4,258.3	4,660.7	4,828.1	4,864.6	4,825.5	4,876.6
	신흥시장국	1,404.4	1,397.2	1,600.2	1,739.1	1,752.2	1,722.9	1,688.2
VIX ¹⁾		15.0	25.3	16.9	16.3	15.3	16.5	15.7
CDS프리미엄 ¹⁾ (bp)	신흥시장국	124.1	194.2	161.7	154.8	150.1	140.4	141.3
	중국	43.5	52.4	44.1	40.0	40.3	37.2	37.0
	한국	21.8	35.1	28.8	21.4	22.2	22.3	22.5
유가 ¹⁾ (달러/배럴)	WTI ⁴⁾	57.4	101.4	105.1	88.7	87.4	69.5	79.6
	Brent ⁴⁾	60.9	118.4	114.0	94.3	92.1	72.9	85.0
	Dubai ⁵⁾	61.1	98.8	100.4	88.2	82.7	70.7	80.3
신흥국 글로벌펀드자금 유입 (기간중, 억달러)		553.1 ⁶⁾	-20.4	-106.5	-501.8	-501.8	-233.7	156.1 ⁷⁾

주: 1) 기말 기준

2) JPMorgan

신흥국지수 기준

3) MSCI 기준

4) 선물 기준

5) 현물 기준

6) 12월 기준

7) 26.7.2~7.8일 기준

[실물경기]

□ 국내경제는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수출과 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소비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성장세가 확대되었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 전환하였으나, 제조업 등 주요업종에서는 감소세가 이어졌다. 앞으로도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가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소비도 소득 여건 개선에 힘입어 회복세가 확대되면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년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2.6%)를 큰 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성장경로에는 반도체 경기의 확장 정도 및 내수 파급영향, 중동사태 전개상황 및 통상환경 변화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다.

실물경제지표

(%, p, 만명)

	2024	2025	25.3/4	4/4	26.1/4	26.2/4	26.4월	5월	6월
GDP 성장률 ¹⁾	2.2	1.1	1.4	-0.1	1.8	..	-	-	-
(민간소비)	1.3	1.5	1.1	0.4	0.6	..	-	-	-
(설비투자)	1.0	1.5	1.3	-1.6	6.6	..	-	-	-
(건설투자)	-2.0	-9.7	0.2	-2.6	1.4	..	-	-	-
소매판매액지수 ²⁾	-1.9	0.3	1.2	0.6	2.4	..	-3.5	0.1	..
설비투자지수 ²⁾	3.0	1.2	0.6	-3.8	13.0	..	-3.7	-0.1	..
건설기성액 ²⁾	-4.6	-16.5	-0.8	-4.1	0.5	..	-1.4	3.8	..
수출(통관) ³⁾	8.1	3.8	6.5	8.4	38.4	57.3	47.7	53.0	70.7
- 일평균 ³⁾	(8.1)	(4.5)	(2.0)	(11.6)	(35.3)	(56.1)	(47.7)	(60.5)	(59.4)
제조업생산지수 ²⁾	4.3	3.0	1.4	-3.3	3.0	..	-0.8	-3.0	..
서비스업생산지수 ²⁾	1.3	2.0	0.7	1.2	1.4	..	-0.9	1.3	..
소비자심리지수 ⁴⁾	99.8	103.9	110.6	110.6	110.0	104.0	99.2	106.1	106.6
기업심리지수 ⁴⁾⁵⁾	93.1	92.9	93.1	93.4	97.2	100.4	99.1	100.8	101.2
취업자수 증감 ³⁾⁴⁾	15.9	19.3	21.6	19.5	18.3	3.2	7.4	-4.0	6.3
고용률(계절조정계열)	62.7	62.9	62.9	62.8	62.9	62.6	62.7	62.5	62.6
실업률(계절조정계열)	2.8	2.8	2.7	2.9	2.9	2.8	2.8	2.8	2.7

주: 1) 계절조정, 전기비 2) 계절조정, 전기비,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동향」 기준
 3) 전년동기비 4) 연·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5) 제조업 실적 CBSI 기준

[물 가]

□ 물가를 보면, 6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고 농축수산물가격 상승폭도 확대되면서 3.2%로 높아졌으며,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2.5%를 나타내었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은 2%대 후반 수준을 이어갔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가 하락하였지만 그간 높아진 비용 및 환율의 영향이 지속되고 소득 개선에 따른 수요측 압력도 점차 확대되면서 상당기간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전망(2.7%)에 대체로 부합하겠지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전망치(2.4%)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물가경로에는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 내수 개선 속도 및 임금 상승세 확산 정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물가지표

(전년동기비, %)

	2024	2025	25.3/4	4/4	26.1/4	2/4	26.4월	5월	6월
소비자물가 ¹⁾	2.3	2.1	2.0	2.4	2.1	3.0	2.6	3.1	3.2
	-	-	(0.3)	(0.6)	(0.9)	(1.1)	(0.5)	(0.5)	(0.1)
▪ 농축수산물	5.9	2.4	2.9	4.2	1.2	1.6	-0.5	2.2	3.2
▪ 공업제품	1.5	1.9	1.8	2.3	1.9	4.1	3.8	4.2	4.4
(석유류)	-1.1	2.4	0.0	5.6	2.5	23.6	21.9	24.2	24.7
(석유류 제외)	1.9	1.9	2.1	1.9	1.8	1.6	1.4	1.6	1.8
▪ 전기·수도·가스	3.5	1.9	1.1	0.4	0.2	0.2	0.2	0.1	0.1
▪ 서비스	2.2	2.2	1.9	2.3	2.4	2.6	2.4	2.8	2.6
(공공서비스)	1.7	0.8	-0.3	1.3	1.4	1.6	1.4	1.8	1.6
(개인서비스)	3.0	3.1	3.0	3.1	3.2	3.4	3.2	3.7	3.4
근원인플레이션율									
▪ 식료품·에너지 제외	2.2	1.9	1.7	2.0	2.2	2.4	2.2	2.5	2.5
▪ 농산물·석유류 제외	2.1	2.2	2.2	2.4	2.3	2.4	2.2	2.5	2.4
기대인플레이션율 ²⁾	3.0	2.6	2.5	2.6	2.6	2.8	2.9	2.8	2.8

주: 1) ()내는 전기비

2)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일반인 기준), 연·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금융안정]

-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주식자금 유출, 미 달러화 강세 등으로 1,500원대 중반까지 높아졌다가 외환수급이 개선되면서 1,400원대 후반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국고채금리는 국내외 통화정책 기대 변화 등에 영향받아 상승하였고, 주가는 AI 투자 관련 우려 부각, 외국인의 대규모 주식 순매도 등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상당폭 조정되었다.

국내금융지표

	2025	26.3월	4월	5.27일	5월	6월	7.15일
국고채금리 ¹⁾²⁾ (3년물, %)	2.95	3.55	3.60	3.71	3.73	3.70	3.87
국고채금리 ¹⁾²⁾ (10년물, %)	3.39	3.88	3.92	4.10	4.07	4.09	4.33
통안증권금리 ¹⁾²⁾ (91일물, %)	2.40	2.55	2.57	2.62	2.62	2.67	2.73
CP금리 ¹⁾²⁾ (91일물, %)	3.30	3.13	3.08	3.07	3.07	3.16	3.16
회사채금리 ¹⁾³⁾ (3년, AA-, %)	3.46	4.18	4.25	4.33	4.34	4.38	4.57
(3년, BBB-, %)	9.30	9.99	10.05	10.15	10.15	10.18	10.37
KOSPI ¹⁾	4,214.2	5,052.5	6,598.9	8,228.7	8,476.2	8,476.5	7,284.4
원/달러 환율 ¹⁾	1,439.0	1,530.1	1,483.3	1,501.2	1,507.9	1,549.4	1,484.7
원/100엔 환율 ¹⁾	922.2	959.3	923.4	942.1	946.6	955.0	915.5
외국인 주식순매수(조원) ⁴⁾	2.7 ⁵⁾	-40.5	0.6	-44.9	-48.9	-57.5	-11.3
주: 1) 기말기준 2) 최종호가수익률 기준 3) 민간신용평가기관 4사 평균 기준 4) 월중 기준 5) 12월 기준							

-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과 기타대출이 모두 늘어나면서 큰 폭 증가하였으며, 수도권 주택가격의 오름세는 확대되었다.

가계·기업대출 및 주택가격 지표

	2024	2025	25.3/4	4/4	26.1/4	2/4	4월	5월	6월
은행 기업대출 증감(조원)	67.4	48.8	17.1	3.8	23.1	26.4	10.7	10.6	5.1
▪ 대기업	26.7	20.4	5.7	0.7	12.0	13.5	5.0	5.2	3.4
▪ 중소기업	40.6	28.4	11.4	3.2	11.1	12.8	5.7	5.4	1.7
은행 가계대출 증감 ¹⁾ (조원)	46.0	32.8	8.8	3.5	-1.0	16.6	2.1	6.9	7.6
▪ 주택담보대출 ¹⁾	52.2	32.6	9.6	2.4	-0.3	10.2	2.7	3.2	4.3
▪ 기타대출 ²⁾	-6.0	0.3	-0.8	1.1	-0.6	6.4	-0.6	3.7	3.3
주택 매매가격 ³⁾ (%)	0.1	1.0	0.3	0.8	0.7	0.7	0.2	0.2	0.3
▪ 수도권 ³⁾⁴⁾	1.4	2.9	0.7	1.5	1.2	1.5	0.3	0.5	0.7
(서울) ³⁾	3.2	7.1	1.8	2.8	2.0	2.5	0.5	0.9	1.0
▪ 지방 ³⁾⁵⁾	-1.0	-0.7	-0.2	0.1	0.2	0.0	0.0	0.0	0.0

- 주: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전세자금대출, 이주비·중도금대출 등 주택담보로 취급되지 않은 주택관련대출 포함
2) 일반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 상업용부동산(상가·오피스텔 등) 담보대출, 기타대출(예·적금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등) 등으로 구성
3) 전기비, 연·분기는 전기말월대비, 한국부동산원 지수 기준
4) 서울, 인천, 경기 5) 수도권 제외

[향후 정책 방향]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반도체 경기 호조의 영향이 파급되면서 수출과 내수 모두 견조한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물가는 그간 높아진 비용 압력이 당분간 이어지는 가운데 수요측 압력도 점차 높아지면서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높은 환율 변동성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에 계속 유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물가상승 압력의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다.
- 금번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대해서는 금융통화위원 7명 모두 찬성하였다.